

짠짠짠~ 선거판에도 트로트 열풍

5·31지방선거에도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다. 선거를 앞둔 주요 정당들은 경쟁적으로 '트로트'를 로고송으로 개사해 내놓고 있다. 귀에 익숙한데다 개사하기 쉬운 운율을 가졌다는 점이 인기비결이다.

로고송으로 개사 인기몰이

한나라당은 장운정의 '짠짜라'를 "한나라, 이젠 2번 짝어요, 맘없이 그만 짝어요~"로 개사했고, 민주당은 '힘내라 민주당' '오빠 민주당' 등 트로트 넘새가 물씬 풍기는 로고송을 발표했다.

박근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측은 대선이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를 '시정은 아무나

하나'로 바꿨으며 박상철의 최근 히트곡 '무조건'을 "사랑이 필요할 때 광대 불러줘~"라는 내용으로 개사한 로고송을 내놨다.

박준영 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도 최석준의 '꽃을 든 남자'를 "메마른 전남에 (3번 박준영) 단비를 뿌려요, 희망이 싹틀 수 있게(3번 박준영)~"란 내용의 가사로 바꿔 로고송을 선보였다.

서범석 열린우리당 전남도지사 후보는 김수희의 '남행열차'를 "기분좋은 호남선 희망열차에 우리들의 꿈을 싣고서, 모두 함께 일어나 다함께 의처요 위대한 전남 기호 1번 서범석~"이란 가사로 변형해 홍보하고 있다.

대학가나 노래방 등에서도 트로트의 인

기는 단연 '불'이다. 대학생 김예영(여·23)씨는 "요즘에는 모임이나 MT에서 '어머나'나 '무조건' 등 트로트를 부르는 학생들이 많다"며 "남행열차같은 곡은 너무 많이 불러져서 금지곡일 정도"라고 전했다.

모든 세대 호감 새로운 문화로

노래방 기기업체 태진미디어가 자체 집계한 결과 장운정의 '어머나'가 불린 횟수는 180만 3천542회로 버즈의 '겉쟁이'(219만6천198회), '가시'(205만7천160회)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트로트가 세대를 넘어 인기를 끌자 신세대 트로트 가수들의 출연도 잦아졌다.

텔런트 이재은(26)이 '아시나오' 트로트곡을 발표했고, 맨스가수로 활동했던 쌍둥이 듀엣 쉐퍼, 슈퍼 모델과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구성된 4인조 여성 그룹 LPG, 남자 장운정으로 불리는 박현빈 등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같은 트로트 열풍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진흥회 광주본부 김효중(49) 회장은 "트로트는 발라드나 가곡과 달리 희적이거나 모임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라며 "전통 트로트가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로 함께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트로트가 탄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무소속 후보 당적보유 '등록무효' 논란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남 일부 지역 무소속 후보들이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등록 무효'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선군수 입후보자에 대한 당적을 조회한 결과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무석(56) 후보가 민주당적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발행한 당적확인서에는 유 후보가 지난 1월 25일 입당한 것으로 돼 있고 입당원서에도 본인의 것으로 보이는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측은 "민주당에서 전락 공천을 위한 영입을 제의하면서 서류를 요청해 중앙당 사무총장실에 맡겨뒀을 뿐"이라며 "경선 자체를 포기했다"고 입당일인 1월 25일은 공직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입당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여수지역 무소속 도의원 후보 2명과 시의원 후보 1명도 각각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당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또다른 무소속 시의원 후보 1명은 사무착오로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에 탈당계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성군과 여수시 선관위는 오는 28일까지 이들 후보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해 놓은 상태며 29일 선관위 전체 회의를 통해 '등록무효'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52조(등록무효) 7항에는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를 등록무효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선거전이 종반에 접어들어 26일 열린우리당 김근태 최고위원이 서범석 전남지사 후보 고홍지 원우세 도중 유권자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위) 민주당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와 정균환 전북지사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호남권 공동번영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시설

요동칠 선거후 정국, 민생은 누가 돌보나

열린우리당이 선거도 치러보기 전 사실상 선거패배를 자인하는 듯 한 대국 민 호소문을 발표한 뒤 5·31 지방선거 관세는 되레 열린우리당에 불리하게 진행되는 모양이다. 언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이 우세한 곳이라면 대선시점 선거와 제주지사 선거마저도 한나라당에게 바짝 추격을 당하는가 하면 서울과 경기에선 1위인 한나라당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선거가 끝난 뒤의 정국 대안과 그에 따른 민생·경제의 약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동영 의장이 주중에 밝혔듯 열린우리당은 민주당과의 합당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기고 있는 반면 당의 정신적 중심인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차기 대권주자인 고건 전 총리도 열린우리당과의 제휴를 거부한 상태다. 정가엔 이처럼 고립무원에 빠진 열린우리당이 분

해될 것이란 추측과 함께 노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진보 좌파정당이 꾸려져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여당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어떤 경우건 여당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대표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고 이견 조율이 필요한 민생문제들은 차기 정권을 향한 헤게모니 싸움속에 갈팡질팡 할 것이다.

이 와중에 고유가와 저환율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경제를 위협하고, 한미 FTA감등을 비롯한 수많은 국내외 문제들은 방향타를 잃은 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래선 큰일이다.

여당은 집권 마지막 날까지 정부와 협력해 민생을 챙겨야 한다.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읍소할 것이 아니라 선거 승패와 무관하게 끝까지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달라.

壯途오르는 태극전사들 명경기 기대한다

오늘 스포츠 세명의 태극전사들이 마침내 2006 월드컵의 장도에 오른다. 유럽에서 2차례의 평가전을 치른 뒤 다음달 6일 독일에서 열리는 월드컵 대표팀은 13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토고와 역사적인 분신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르게 된다. 자랑스런 대한의 아들들이 2002년에 이어 또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멋진 성적을 거두길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축구 대표팀은 어지러운 정치와 고달픈 경제 속에 우리국민에게 기쁨을 주는 영웅들로 부상한지 오래다. 국민은 우리선수들의 동작 하나하나, 흘리는 땀방울, 쏟아내는 숨 마다 함께 열광하고 탄식하며 뒹어버릴 뻔한 일체감과 자신감을 되찾는다. 우리는 또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경기라는 축구를 통해 세계인과 함께 호흡하며 열광하는 행복 찬란한 월드컵 시즌을 보낼 기쁨에 들떠있

다.

당부건데 대표팀 선수들은 매 경기 열정을 불사라 후회없는 명경기를 펼쳐주기 바란다. 16강, 8강, 4강도 중요하지만 넘치는 투혼과 자신감으로 빛나는 명승부를 펼칠때 세계인은 한국팀에 열광하고 한국인의 자력을 인정한다. 이번 월드컵 최고의 승부, 최고의 장면, 최고의 감동을 주는 플레이를 한국팀이 창조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4년전 감동의 4강으로 하나된 코리아를 만끽했다. 그러나 그 열기는 창조적·생산적 에너지로 승화되지 못했다. '꿈'을 이룬 자력으로 내부의 갈등을 녹이지도, 힘든 경제난을 이겨내지도, 국제사회에 이렇다할 공헌을 하지도 못했다. 여기엔 국민을 통합하기보다 평가받는 데 더 소질있는 정권의 책임도 크다. 이번엔 좀 달라져 보자. 태극전사들의 박한 개선이 기다려진다.

5·31 지방선거 현장

'오일단체' 사칭 후보지시 반발

○(45·18민주유공자유총회, (4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45·18구속부상자회, 재단법인 5·18기념재단은 26일 공동 성명을 내고 '5·18 명예회복 추진 위원회'가 5월 단체를 사칭,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며 반발했다. 이 단체들은 "5·18에 대한 역사의 평가와 보상을 특정의 노고로 찬양하는 것은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영세상인 경영활성화 대책

○(조영태 열린우리당 광주시장 후보는 26일 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 및 프랜차이즈 육성법 제정 건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경영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조 후보는 ▲창업지원자금 금리 및 보증수수료 인하 ▲음식·숙박업 및 소매업 부가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를 인하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 확대 등을 제시했다.

공인 특례보증 규모 확대 등을 제시했다.

서범석 후보 "순천대 특성화"

○열린우리당 서범석 전남도지사 후보는 26일 순천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서 후보는 "순천대를 농업생명과학대로 특성화하고 전남 동부권 바이오파리를 서울대 농생대 2캠퍼스로 유치하거나 순천대와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광운 후보 복구발전 공약

○송광운 민주당 광주 복구정당후보는 26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산업 촉진, 교육특구 지정 등 복구발전 전을 위한 3대로드맵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절단산업단지 내에 자동차부품소재 집적화단지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대학과 연계한 신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연합뉴스 사장 김기서씨 선임

연합뉴스는 26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가 사장 후보로 추천한 김기서(51) 편집국장

임기 3년의 새 사장으로 공식 선임했다.

김 신임 사장은 용산고교 연세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뒤 1979년 동아방송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 연합뉴스 워싱턴특파원과 정치부장, 편집국장 등을 거쳤다. /연합뉴스

光 叻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略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鎭	편집국장 池炳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체육부 2200-626	광안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액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방선거 D-4 고홍군수 후보 초청 토론회 광주일보·KBC 공동



인재 발굴·교육환경 개선 외자유치 관광산업 육성



◇모두발언
▲박병중=민주당 집권시절 추진된 우주센터를 비롯한 각종 국책사업 등이 열린 우리당이 집권하면서 지연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바꾸자. 누가 진정으로 국민을 하를 같이 떠맡는 진실한 머슴인지 가려달라.
▲진중근=지난 선거 당시 때 제시한 10대 공약사항을 거의 다 마무리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단체로부터 45회 이상 가장 우수한 행정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우주항공 시설도 차질없이 추진했다. 군수가 되면 추진 중인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겠다.
◇공통질문
▲사회=고흥군의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인구유출의 원인과 대책은.
▲박병중=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는 점과 자녀교육 문제가 그 원인이다.

광주일보와 KBC는 26일 오후 6시부터 열린우리당 진중근, 민주당 박병중 후보 등 고홍군수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주항공산업, 우수교원 확보 방안 등과 관련해 후보자들간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 영여체합도시를 유치,고흥·농봉고교를 명문고로 지정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여준다.
▲진중근=구조적 문제이므로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다.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추진하겠다. 인재육성과 교육환경을 개선을 추진하겠다.
▲사회=우주항공산업에 대한 비전은.
▲박병중=고흥군의 예산은 민주당 신중식 의원이 예산을 편성하고 박준영 지사가 집행한다는 것을 알아달라. 고홍 일대에

외자를 유치해 관광산업화를 이룰 것이다.
▲진중근=우주항공을 테마로 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를 이용해 전국의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군민의 지역경제소득을 이끌겠다.
▲진중근=농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해 군민들의 소득을 개선할 것이다. 친환경수산물 유통센터 건설과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육성 사업을 교육당국과

협이해서 적극 추진할 것이다.

▲박병중=농산물경쟁력과 농업인 회관 건립은 동떨어진 문제로 보인다. 전지행정 이 아닌가.
▲진중근=농업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다.
▲박병중=사이언스파크 등 2002년 당시 내놓았던 공약들을 지금도 내놓았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진중근=행정은 연속성이 있다. 2002년도에 우주항공도시건설문제는 제가 군수를 하면서 추진한 문제다.
▲박병중=기간조정 및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룰 것이다. 청정식품가공단지 조성해 고용창출을 유도하겠다.
/정리=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빛다만평 - 김중두



진작 그랬으면 좀 좋아!!

'박대표 테러' 단독범행 결론날듯

합수부, 돈거래·통화내역 분석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중인 김·경 합동수사본부는 26일 '박대표 테러범' 지중호(50)씨의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합수부는 현재 지씨의 돈거래 상황과 통화내역 분석, 주변 인물들의 진술 등에 비춰 공범이나 배후 세력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부는 지씨가 범행 당일 친구 정모씨에게 "오세훈을 갖겠다"고 말하고 또 다른 친구에게도 비슷한 말을 한 정황이 드러나 지씨가 당초 오세훈 서울 시장 후보를 노렸을 가능성이 주목하고 있다.

합수부는 지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3개월치 분석을 통해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 못했고 지씨가 범행 장소에 가기 위해 탔던 버스의 폐쇄회로TV 영상을 입수, 동승자가 없는 사실을 확인했다. 합수부는 지씨가 100만원짜리 수표를 사용했다

는 의혹과 관련, 지씨가 수표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납업자가 조사받으면서 관련 진술을 하지 않았고 자서 또한 "평생 100만원짜리 수표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정몽구 회장 보석 신청

현대차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보석을 신청했다.

정 회장 변호인단 관계자는 "검찰의 주장처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는데다 정 회장이 오래 자리를 비우면서 현대차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석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령인 점과 고혈압 등 건강 문제를 입수, 동승자가 없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